

몽골 “한류”의 특성과 전망

김선호*

- I. 들어가는 글
- II. 몽골 한류의 배경
- III. 몽골 한류의 형태적 특성
- IV. 몽골 한류의 발전방향
- V. 나오는 글

I. 들어가는 글

“솔롱고스식”(한국처럼: *солонгоский* *шаг*)이라는 단어는 요즘 몽골의 라디오 방송에서 너무 자주 들을 수 있는 몽골식 “한류”(韓流)의 상징어이다. 본 글은 1990년 개혁 개방과 함께 그 해 3월 26일 한국과 수교를 맺고 빠른 속도로 관계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몽골에서 중국에서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한류”, 바로 이 “솔롱고스식”의 특징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보는 연구이다.

한·몽수교 이후 몽골의 정치적인 빠른 변화와 여기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몽골에서 한국풍이라는 것은 크게 기대할

* 부산외대 국제통상 지역원 전임교수

수는 없었다. 더욱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몽골사회가 어떤 외래의 독특하고 순수한 문화적 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주었다. 특히 230만 정도의 적은 인구와 수도 울란바타르의 50만 정도의 인구는¹⁾ 외국문화의 범람 혹은 지배라는 단어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다.²⁾ 나아가 유목민들의 특성인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내부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는 어느 한 문화형태가 일정기간 머물면서 그 사회의 색깔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몽골에서의 “솔통고스식”은 단순하고 짧은 사회 일면의 현상이라고 간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보여지는 적극적인 “한류” 현상과 비교하여 볼 때 나름대로 몽골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적은 인구의 사회에서 상당기간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몽골인들이 보는 한국이라는 관점을 출발선으로 살펴보고, 현재 몽골에 나타나는 한류 형태와 그 특성을 정리한 다음, 많은 문제도 안고있는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을 감히 추론해 보고자 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이른바 대중문화 스타가 현지를 방문하거나 공연한번 한 적이 없지만 몽골현지에서 나름대로 자리매김하는 한류는 이 시점에서 한번쯤 분석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자료면에 있어서의 한계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으나 현지와의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접촉을 통해 대부분 시사성이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
- 1) 개혁 개방 후 10년이 지난 2001년에는 지방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비공식적인 통계로 80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2) 적은 인구의 몽골은 50년대 중국 노동자의 대규모 이주가 울란바타르시를 중국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몽중관계 악화를 기회로 이들을 추방하였고, 그 후 항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강했다.

II. 몽골 한류의 배경

1. 몽골개혁 이후 한·몽간의 교류발전

몽골과 한국과의 1990년 수교이후 정치적으로 한·몽관계가 정점에 이른 것은 1991년 10월 22일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몽골대통령이 방한한 것이다. 몽골대통령의 방한에는 40여 명의 몽골정부 각 부처의 수행원들이 동행하였고, 방한중 한·몽협정 체결, 외교관 및 관용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체결 등이 이루어 졌다.³⁾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발전은 사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교류를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특히 경제 학술제등의 교류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94년에는 무엇보다 11월에 개설된 서울—울란바타르의 직항로 덕분에, 과거 북경 경유(經由)로 불편했던 한·몽골간의 인적, 물적교류가 이제는 좀더 활발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한·몽관계의 발전은 두 가지 형태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첫째 한국인들의 몽골진출이 비즈니스그룹과 선교그룹이라는 형태로 나누어져 몽골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섰다는 것이다. 몽골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비즈니스 그룹은 한탕주의로 부작용을 낳았고⁴⁾ 선교단들은 한국선교사들간의 반목으로 인구가 적은 몽골인들을 갈라놓는 부작용을 낳았다.⁵⁾

둘째로 몽골인들은 이시기에 한국에 와서 3D업종에 종사하고 불법 체류를 하며 돈을 벌며 금의환향하려는 현상이 있었다.⁶⁾ 상당수의 몽골

3) 최성호, 『몽골』(서울: 한국국제협력단, 1993).

4) 주로 서비스업 특히 유흥업에 투자하여 몽골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한 면은 극히 적었다.

5) 그 폐해가 심각하여 1997년 몽골정부는 한국인들에게 장기비자를 일시 금지했던 사건도 있었음.

6) 2000년 한·몽 포럼에서 몽골측 자료에 의하면 연인원 20만명 즉, 몽골인구의 10%가 한국을 다녀갔다고 함.

인들이 이른바 코리아나 드림을 이루기도 하였지만, 한국에서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몽골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쁘게 남겨지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러한 관계발전은 개별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몽골인들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인식하고 과거 자신들이 지배하였던 국가라는 민족적 우월감으로부터 반대로 일종의 물질문명에 따른 동경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변화를 이루어냈다.

결국 몽골에 한류가 생성되는 1990년대 말기 몽골과 한국과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병존하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몽골인들에게 있어서의 한국

1990년 수교에서 2000년 초기까지 몽골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현재 몽골이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고자하는 국민들간의 연대의식 등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형태로 의식 발전이 변화되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몽골인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매체의 발전이다. 즉, 1990년대 말에서 2001년까지 몽골인들은 과거 획일적인 대중매체에서 드디어 다양한 외래문화 특히 거리감이 없는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여기서 몽골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분석하여 몽골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보는 한국을 간접적으로 인식해 보고자 한다.

장기 거주하는 주몽골 한국인 수의 공식집계는 500명에 이른다. 여기에 유동인구며 기타 잡다한 사람까지 합쳐서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1,000명에 가깝다고 한다. 이들을 몽골에 이주한 시기별과 직업적인 특성으로 나누어 보면 대략 3세대까지 존재한다고 본다.

1세대는 한몽수교 직후에 몽골인과 손을 잡고 한국에서 소자본으로

들어와 크게 성공하지도 그렇다고 눈에 띄게 망하지도 않고 현재 요식업이나 유흥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봉재공장이나 보세의류 상인들을 이르며 이런 유사한 입국자가 1990년대 중반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여기에 학자들과 선교사들이 동시에 들어왔었고,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도 현재까지 존재한다. 이들 중 물론 몽골사회에 유흥업이라는 것을 가져오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던 부류들은 몽골인들에게 그리 좋은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젊은 세대나 부유층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적은 인구, 즉 적은 규모의 시장인 몽골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정통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말 엉뚱한 생각 중의 엉뚱한 생각이다. 몽골인조차 자신의 나라에서 러시아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한다는 건 좀체 납득이 가기 힘든 일이라고 한다.⁷⁾ 러시아에 이미 1세기 가까이 영향을 받은 폐쇄적인 사회에 뚫고 들어가 한국인 1세대들은 잘 버티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2세대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자기 자본을 들고 와서 몽골에 정착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수가 성공에 대한 의욕은 매우 강하나 이들 역시 몽골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로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불이익이나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는 경우도 있다.⁸⁾ 이들은 특히 1세대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심하게 일어 몽골인들에게는 한국이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잘살아 보자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하였지만 전통유목사회와 같은 끈끈한 인간애는 결여된 것으로 보여졌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3세대는 한국에서 엄청난 투자자를 업고 시작하는 사업

7) 현재 몽골에 유학하고 있는 강군의 전언(傳言).

8) 전문 사기단에 의해서가 아닌 몽골의 관습 문화를 이해 못하고 섬불리 투자한 경우를 말함.

가나 기타 부류의 사람들을 이른다. 제 3세대가 정착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한국으로 쏠렸다. 과연 과거부터 무언가를 하려고 꿈틀대는 몽골내의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몽전도⁹⁾ 한국으로의 재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던 몽골인들에는 낯설지 않은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몽골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초기 관계발전 단계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의 모델 혹은 몽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몽골에 투자를 위해 과감히 모험을 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형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점차 쌍방향교류의 형태로 바뀌는 90년대 중반이후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몽골에 모두 긍정적으로 비치지는 않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3세대의 적극적인 몽골투자와 그리고 몽골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다수의 몽골인들의 '한국소개'라는 정보제공에 힘입어 90년대 후반에 이르면 몽골사회에서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라는 정도는 모두 알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몽골매체의 한국에 관한 적극적인 이슈화가 몽골 내에 한국이미지 심기를 더욱 심화 시켰다는 것이다. 몽골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게 된 후 몽골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수용'이라는 형태로 1990년대 후반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9) http://mongol.chosun.com/info/book/book_paper/book_paper19990530.html

III. 몽골한류의 형태적 특성

1. 몽골에서의 '한국풍'

일반적으로 유목사회가 받아들이는 외래문화는 반드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경사회의 경우 보다 널리 그리고 빨리 받아들여진다. 몽골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한국풍'은 곧바로 '한국처럼'으로 적극적인 수용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다양성은 또한 매우 크다.

1994년 <투캅스>가 TV방송에서 방영되었지만 몽골사회에서 그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진 않았고 오히려 드라마를 통한 한국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그대로 몽골로 옮겨지기 시작하며 '한국풍'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비록 몽골에서는 제작 기술의 문제와 제작비의 문제로 인해 자체 제작의 드라마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것과 기타 주변 아시아국가들의 프로그램을 수입 방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1999년 몽골국영방송에서 방영한 <모래시계>는 그 인기가 높아 울란바타르 TV방송에서 다시 재방영하며 몽골의 안방극장에 한국 드라마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¹⁰⁾

2001년도에 이르러서는 한국드라마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이 당시 방영된 <장미와 콩나물>, <첫사랑> 등은 몽골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옷과 핸드폰 악세사리 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유행하였다.

특히 아리랑 TV의 몽골지역 방송은 몽골인들에게 더욱 자주 가까이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최근에는 <호텔> 등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장미와 콩나물>의 최진실이라는 배우의 본명은 모르고 모두 극중 인물인 "미나"를 그녀의 본명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에 빠져 들어가는 정도 역시 상당히 깊다는 것

10) *Mongolian Times* ; <http://myhome.thrunet.com/~dominatecho/liv/4-1.htm>

을 알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과 같이 한국의 배우들에 대한 선망보다는 극중에 나오는 캐릭터가 몽골인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몽골에서의 ‘한국풍’은 결국 다양한 형태로 한국을 접한다는 단순한 접촉의 의미보다는 자신들 문화안에 깊이 심어놓는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하겠다. 즉, 몽골인들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한국풍의 수용은 과거 한·몽간에 부정적인 현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발전을 기대한다는 몽골인들의 기대심리와 물질문명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한국도 가능하니 몽골도 가능하다는 강한 희망 등이 어우러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 분야별 한류의 형태

무엇보다 먼저 학문분야에 있어서 몽골의 한류 즉, “솔롱고스식(한국처럼)”이 나타난다. 몽골인들에게 개혁 개방이후 제일먼저 유행하였던 것은 한국어 배우기와 한국 현대사 연구하기였다. 지금도 수많은 몽골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돌아가 몽골사회에 한국 알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몽골에 간 선교사는 물론 청년봉사단 등이 제일 먼저 요구받는 것은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한국에의 취업이 가장 커다란 동기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한국현대사 특히 경제 발전사를 배워 몽골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다.¹²⁾ 1999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 부정기적으로 시행하였던 한국어 능력시험은 이 해 10월 23일부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시험으로 자리 잡았고 평균 200여 명의 학생들이 응시하여 어휘와 문법, 듣기, 읽기, 쓰기 등의 4개 영역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¹³⁾ 이외에도 한진그룹의 21세기한국연구재단 등에서는 몽골학생들을

11) 현재 몽골에 유학중인 양양의 傳言.

12) 현 몽골대통령 바가반디의 딸은 서강대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돌아가 몽골경제 부흥에 일조하고 있다.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에서의 유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을 배우자'는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한류는 몽골의 엘리트그룹에 한국을 심는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지만, 일부 한국의 교육기관에서는 가난한 야만의 나라에서 온 고학생 정도로 멸시하는 사건들도 있어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 다음은 역시 예술 분야에 있어서 한류의 열풍이다. 드라마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99년부터 몽골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한국드라마 열풍과 같이 출연하는 한국 배우들에 대한 열광적인 면보다는 극중 인물에 대한 선망이 더욱 커서 실제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인지 한국문화가 만들어내는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동경인지는 현지 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음악에 있어서도 한국대중음악들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몽골 젊은이들에게는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다. 몽골인들이 직접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접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가수들의 중국공연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기도 할 정도이다.¹⁴⁾

의식주(衣食住)의 관점(觀點)에서 대중문화의 변화와 한류의 흐름은 우선, 의상의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의상 문화의 원천(源泉)은 이제 어떤 특정 연예인이나 특정인을 추종(追從)하는 흐름이 아니다. 그저 자신에게 맞고 편안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흐름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은 각종 연예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인 것이다. 이런 연예인들이 몽골의 젊은 층의 눈을 자극하였고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어 급기야 '한국 의류점'(솔롱고스 흠차스니 델구르; Solongos Khuvtsasni Delguur)이라는 새로운 상권(商圈)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인 것이다.

식생활 부분의 의식변화는 더욱 놀랄만한 것이다. 원래부터 매운 음식을 가리고 채소보다는 육식을 즐겨하던 몽골인들에게 한국의 음식은

13) *Mongolian Times* ; <http://myhome.thrunet.com/~dominatecho/edu/9-1.htm>

14) 2002년 1월 15일 금요일 UBS방송에서는 한국가수들의 중국공연실황을 방영하였음.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부분이었으나 한국인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음식이고,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을 한번이라도 방문했던 몽골인 이라면 다시 한국의 매운 음식을 찾는다는 게 그들의 식생활 변화에 대한 단적인 예이다. 그에 따라 한국 음식점은 수십 개에 다다르고 그 중에서도 몽골인들에게 인지도(認知度)를 높여 품격(品格)있는 음식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음식점도 몇 군데가 되었다. 김치를 비롯하여 삼겹살과 기타 찌개의 전파(轉派)는 몽골인들 자신도 놀라는 부분이다. 몽골인들에게서 한국의 음식은 중국다음으로 종류나 맛의 면에서 제일 다양한 음식으로 공식 발표가 되었고 한국의 음식을 배우려는 몽골인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거주의 공간의 변화도 한국이 주도(主導)를 하고 있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의 건축 자재(資財)는 이미 러시아와 독일, 일본에 앞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고 중요 건축부분에서는 한국 자재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러시아 제품을 최고 선호하던 골수(骨髓) 친(親) 러시아 파(派)도 한국의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인 기술자며 한국의 건축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과 체코, 유고슬라비아 등과 같은 우수한 나라의 기술자들과도 당당히 경쟁을 하고 있다.

IV. 몽골 한류의 발전방향

1. 긍정적인 부분

몽골의 젊은 차기 세대들에게 한국에 관한 깊은 인상과 한국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자극하고 친한국파를 몽골에 깊숙이 심어 놓는다는 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향후 몽골이 자원개발로 경제적 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체가 누릴 수있는 이점 또한 많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결국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몽골에서의 ‘한국풍’은 결국 경제적인 면과 어우러져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몽골에서의 한류는 일방적으로 몽골사회에 유행하는 '한국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거 고려시대 '몽고풍'(蒙古風)과 '고려양'(高麗樣)과 같이 상호 교류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만약 한류가 일방적인 문화 전파라면 1세대가 농경사회의 30년보다 훨씬 짧은 겨우 18~20년에 불과한 몽골사회에서 짧은 시간에 유행하고 없어질 현상인데 교류의 형태로 몽골에서의 한류는 다른 곳에서보다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장기간 지속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1999년 9월 울란바타르시 탄생 360주년 기념을 맞아 한몽 친선 문화공연이 합동을 거대하게 개최되었고 특히 한국의 전통여성극 황진이는 몽골인들에게 굉장한 환영을 받았다.¹⁵⁾ 그리고 2002년 2월 몽골의 립스틱 그룹과 한국의 힙스 보이즈(hips boys) 그룹은 공동으로 몽골에서의 공연에 이어 한국에서도 공연한다고 한다.¹⁶⁾ 이 두 가지 예는 즉, 전통적인 부분과 현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두 몽골과 한국 예술문화의 쌍방향 교류 내지는 공동 공연이라는 이른바 '함께'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몽골과 한국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접목은 일방적인 영향보다는 장기간 바람직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해양의 세계뿐만 아니라 대륙의 세계로 뻗어가야 하는 한반도의 필수적인 발전 방향과 몽골·한국의 우호적인 결합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접목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2. 문제점과 부정적인 부분

몽골에서의 한류는 다분히 우리에게만 기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5) *Mongolian Times* ; <http://myhome.thrunet.com/~dominatecho/liv/7-1.htm>

16) daum 카페, 몽골과 한국, 게시판 1295번 공지사항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기회를 부정적인 면으로 이끌고 가는 주체 세력이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라는 데에 있다.

한국을 다녀온 몽골인들은 주변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하여 물질적인 것 이외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면을 전파한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일부 문화현상에서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한국유학생의 견해는 전혀 다르다. 그의 의견인 즉, 몽골인들은 점차 일본을 더 좋아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⁷⁾ 이것은 몽골인들이 물질문명에 대한 추구만 한다면 차라리 일본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여주었던 한국과 몽골의 문화적 결합이 한국인들에 의해 문명이 야만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일반적인 우월감으로 흐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자칫 몽골에서의 한류는 '惡流'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몽골 사회 한복판에서 얼마 전 한국인들은 우월감 때문인지 몽골사회를 무시해서인지 대낮에 한국인들끼리 칼부림을 하는 사건까지 일으켰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몽골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문화는 몽골의 어느 한 계층에게만 우호적이어서 몽골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6,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울란바타르의 경우 이러한 부랑민들은 여름에는 톨강 주변에서 살다가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 계속되는 한 겨울에는 온수파이프가 연결된 맨홀에서 겨울을 난다. 맨홀 밑에 사는 사람들은 부모의 학대로부터 집을 나온 가출 소년, 소녀들이 혼숙을 하며 살기도 하지만 한 가족 전체가 사는 경우도 있다. 극빈자 이하가 1%라는 것이다. 반면에 우후죽순처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유흥업소에는 젊은 몽골판 오렌지 족들과 신흥 부자들이 흥청거리며 광란

17) 예를 들어 일본 프로 스모계에 진출한 몽골 씨름 선수를 연일 대서 특필하며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일본 사회를 극찬한다는 것.

의 밤을 보낸다.¹⁸⁾ 그런데 이러한 유흥업소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에 의해 경영되어지고 있으며 몽골 여종업원들은 이상과 현실에서 꿈을 접은 어린 몽골여성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면 외에도 선교사들조차 몽골인들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시각이 있다. 즉 선교사들은 적은 인구의 울란바타르시에서 어렵게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들의 수가 너무 많아 몽골신도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물질적인 유혹이나 상대방 비방등을 일삼아 몽골신도들이 서로 반목하는 경향까지 있다는 것이다.¹⁹⁾

V. 나오는 글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몽골에서의 한류 특성은 따라하거나 단순한 동경보다 훨씬 강한 의미의 ‘솔롱고스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과 똑같이 되겠다는 적극성은 우리가 몽골의 미래를 보고 몽골에 한국을 계속 심으면서 친근한 이웃으로 지속되어야 할 기회이다. 과거 십 수년간 한국과 몽골의 교류는 이제 최고 정점에 이르면서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그리고 동양 각국에서 나타나는 한류 현상과 연결되어졌다. 물론 쌍방향의 동등한 교류 형태로 ‘함께’라는 개념으로 발전 할 경우 몽골의 한류는 가장 이상적으로 두 나라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몽골 한류의 특성에 반하여 그 전망은 오히려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에서 보았듯이 한국인들의 우월감과 멸시가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한국 스스로가 몽골에서의 한류를 ‘惡流’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다.

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수용하려는 몽골사회를 한국은 겸손하게 교

18) *Mongolian Times* ; <http://myhome.thrunet.com/~dominatecho/soc/8-2.htm>.

19)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목사회에서 분열은 전통적으로 곧 파멸을 의미한다.

류의 형태로 끌어안으면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그리고 다른 다양한 면에서의 발전이 확연해지고, 반대로 지금과 같이 일시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 몽골사회에 악영향만 준다면 오히려 한국과 몽골사이를 갈라 놓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갈림길에서 생각해 보면, 몽골에서의 한류는 밝은 전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주소이다.